

제25회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

Photo & Imaging 2016 Review



최신 사진 및 영상 문화와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6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SEOUL INT'L PHOTO & IMAGING INDUSTRY SHOW)이 지난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Coex 전시장 본관 1층 A, B홀에서 개최되었다.

코엑스(Coex),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KOPHIA), 한국사진영상기자재협회(KOPI)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광고사진가협회, 미국프로사진가협회(PPA), Photoit, 대한사진영상신문, SLRCLUB이 후원하였으며 니콘, 세기P&C, 소니, 캐논 등 사진영상을 대표하는 기업을 포함 300개 브랜드, 160개 업체 및 기관이 700부스의 규모로 촬영에서부터 인쇄까지, 사진 및 영상에 관한 모든 제품, 콘텐츠 등이 한자리에 총집결되어 전문 사진가, 취미 사진가, 사진 애호가,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까지 다양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장에서는 프로 및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촬영한 세계 7대륙 여행사진과 함께 국내외 숨겨진 사진촬영 명소를 볼 수 있는 Photo & Travel 2016, 라이카 사진전을 비롯해 아시아 최초 사진 아트 페어 The 8th Seoul Photo 등의 전시가 동시 개최되어 방문객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한편, 상반기 한류 열풍을 주도했던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백상훈 프로듀서와 김시형



촬영감독의 '태양의 후예' 제작방식 및 촬영기술' 세미나를 비롯해 다양한 사진 및 영상관련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부대행사로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와 함께 국내 UHD 방송콘텐츠 다양화에 따른 전문성 강화의 일환으로 '레드카메라워크숍'을 개최하였다.



Canon



P&I 2016의 캐논 부스는 캐논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였다. 플래그십 DSLR 카메라 'EOS-1D X Mark II', 프리미엄 중급 DSLR 'EOS 80D', 하이엔드 카메라 '파워샷 G7 X Mark II', 포토프린터 '셀피 CP1200' 등 다채로운 캐논의 라인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4년 만에 출시한 플래그십 DSLR 카메라 'EOS-1D X Mark II' 존에서는 탭댄스, 비보잉, 살사 댄스 공연을 EOS-1D X Mark II의 최대 초당 약 16

연사의 고속연속 촬영성능을 체험 해 볼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4K 60p의 고화질 영상 촬영 및 4K 동영상에서 영상 프레임 단위로 정지 사진을 추출하는 '4K 프레임 추출 기능(4K Frame Grab)'과 같은 신기능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존이 마련되어 있었다.

'EF 렌즈 존'에는 다양한 EF 렌즈 라인업이 전시되어 있어서, 직접 만져보고 사용해 볼 수 있었다. 한편 캐논은 P&I 2016 기간 동안 코엑스에 마련된 별도의 세미나 룸에서 캐논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베스트 강의를 한데 모아 '캐논 아카데미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였다. 행사사진 촬영 노하우부터 드론 촬영, 외장 플래시 사용법, EOS 5D Mark III 사용법 등 다채로운 강의를 통해 다양한 사용자들을 만족시켰다.



Nikon



Nikon D5

니콘이미징코리아는 이번 P&I 2016에서 DSLR 카메라를 포함해 미러리스 카메라 Nikon 1 시리즈와 콤팩트 카메라 COOLPIX, NIKKOR 렌즈 등 전문 가용부터 입문자용 카메라까지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다.

특히 니콘 카메라 중 최고 사양을 자랑하는 FX 포맷 플래그십 카메라 D5와 가장 최근에 선보인 DX 포맷 플래그십 카메라 D500을 비롯해 D750, D5500 등 FX 포맷과 DX 포맷의 주요 제품이 전시되었다.

D5는 광역·고정밀의 153개 포인트 AF 시스템, 유효화소수 2082만, 새로운 화상처리엔진 EXPEED 5를 탑재하고 초당 약 12프레임, 최대 200프레임까지 고속 연속 촬영이 가능하며 니콘 최고의 상용 감도 ISO 102400을 지원하고 4K UHD(3840×2160) 30p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니콘의 FX(풀 프레임) 포맷의 최상위 기종이다. 또한 D500은 DX 포맷 DSLR 카메라 라

인업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고정밀 153포인트 AF 시스템과 새로운 화상처리엔진 EXPEED 5 탑재, 4K UHD 해상도 영상 지원 등으로 최상의 촬영 퍼포먼스를 지원하며 신소재를 활용하고 모노코크 구조를 채택해 휴대성과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미러리스 카메라 Nikon 1 J5와 초 망원 콤팩트 카메라 COOLPIX P900s부터 현재 판매되는 DSLR의 모든 라인업이 전시되었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직접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많이 늘려 사용자가 직접 카메라를 조작해 보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니콘은 저전력 근거리 무선통신(Bluetooth low energy)으로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무선으로 접속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SnapBridge'를 발표했는데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무선으로 연결시켜 이미지, 데이터 등을 바로 전송할 수 있으며 현재 출시된 D500을 시작으로 2016년 이후부터 발표하는 니콘 카메라 전기종이 SnapBridge에 대응할 예정이다.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받을 수 있어 SNS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계해 날짜, 시간, 위치 등의 촬영 정보를 카메라에 자동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P&I 2016 기간 동안 지정된 시간에 니콘 메인 스테이지를 방문하면 각 분야의 다양한 사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강연 프로그램에도 참관할 수 있었고, 강연에는 니콘 리더스 클럽 소속 작가를 비롯해 국내 최초 내셔널지오그래픽 다이버 수중 사진작가 와이진(Y.JIN), 항공사진 전문가 신병호 작가, 그 외 레드불 포토그래퍼 손스타와 방송인 정종철 등 유명 강사진이 참여해 항공, 수중,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테마의 사진 촬영과 영상 제작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SONY



소니코리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미러리스 카메라부터 하이엔드 카메라 RX 시리즈와 핸디캠, 액션캠 등 소니의 제품을 전시하고, '미러리스의 압도'라는 테마에 맞는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소니코리아 부스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수중 정원을 콘셉트로 구성된 메인 '슈팅 존(Shooting Zone)', 모델 촬영체험존, 2층 망원렌즈 체험존 등에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A7 시리즈(A7RII, A7SII, A7II)와 플래그십 APS-C 미러리스 카메라 A6300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올해 출시된 소니 G렌즈의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 'G 마스터

(Master)' 렌즈 라인업 4종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다. 'RX 존(RX Zone)'에서는 세계 최 소형 풀프레임 카메라 RX1R II와 포켓사이즈의 초소형 하이엔드 카메라 RX100 IV 등 소니 RX 시리즈의 대표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었다.

또한 '4K 핸디캠 존(4K Handycam Zone)' 및 '액션캠 존(Action Cam Zone)'에서는 전문가급 영상 촬영을 지원하는 프리미엄 4K 프로젝터 핸디캠 AXP55와 기존 제품 대비 약 3배 강화된 손떨림 보정 기능, 초광각 자이스(ZEISS) 테사 렌즈를 탑재한 2016년형 콤팩트 액션캠 AS50 등 소니의 영상 촬영 기술이 집약된 최신 핸디캠과 액션캠 제품도 선보였다.

'4K 갤러리(4K Gallery)'는 세계 최대 규모 사진대회인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Sony World Photography Awards)'의 수상작을 비롯하여 국내 유명 사진작가들이 A7 시리즈와 RX 시리즈로 직접 촬영한 여행, 스냅, 풍경, 인물 사진 등을 4K 고화질로 전시하여 소니 디지털 이미징 기술의 결과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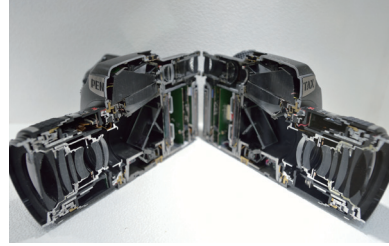


세기P&C



세기P&C는 시그마, 리코펜탁스, 매프로토, 자이스, 젯조, 내셔널지오그래픽, 아이파이, 바라본 등 총 15개의 브랜드의 제품을 전시하였다. 시그마 부스에서는 올해 출시 예정인 sd Quattro, sd Quattro H가 전시되었고, 마운트컨버터 MC-11, A 50-100mm F1.8 DC HSM, C 30mm F1.4 DC DN 신제품 및 C 150-600mm F5-6.3 DG OS HSM, S 150-600mm F5-6.3 DG OS HSM을 비롯한 장망원 렌즈군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다.

리코 펜탁스에서는 펜탁스 유저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펜탁스 풀프레임 K-1과 D FA 신형렌즈를 함께 체험해볼 수 있도록 체험존을 마련



했으며, 유저들이 직접 렌즈를 가져와 마운트해보고 해상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 출시된 펜탁스의 첫 풀프레임으로 'K-1'은 약 3640만 화소의 CMOS 센서를 채용하여 ISO 204800까지의 고감도를 이용해 어두운 장소에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영상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으며 세계 최초 5축, 5스텝 손떨림 보정 메커니즘으로 매크로 촬영에서 발생하기 쉬운 수직 수평 떨림 및 회전으로 인한 렌즈 내 손떨림까지 보정하도록 제작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기능은 내장 GPS와 전자 나침반내장으로 일출과 천체촬영 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천체 추적 기능이 있어 별도의 적도의가 없어도 별을 점상 그대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DJI



M600

Inspire 1 Pro/RAW

Phantom 4

DJI코리아가 2016년 3월 서울 홍대에 해외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세계 최초로 열고 본격적으로 국내 영업을 시작했다. 이번 P&I 2016에서는 지금까지 국내 대리점을 통한 전시와 마케팅이 아닌 DJI코리아가 직접 참가해 한국 드론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3월에 출시된 Phantom4를 비롯한 인스파이어 그리고 출시 예정인 매트리스600(M600)을 공개하였고 핸드헬드 짐벌 OSMO와 로닌 등이 전시되었다.

M600은 전문 항공 촬영 및 기타 산업에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행 플랫폼으로, 영화 제작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쉽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DJI의 새로운 비행 제어 컨트롤러(FC)인 A3와 영상 송수신기 라이트브릿지 2를 탑재해 최장 5km 거리까지 끊김 없는 Full HD 화질의 실시간 스트리밍 지원이 가능하다. Inspire 1 Pro/RAW는 마이크로포서드(M4/3) 이미지센서를 사용하여 4K RAW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Phantom 4는 스크린을 터치하여 목적지 설정을 할 수 있는 TapFly기능과 터치를 통해 특정피사체를 인식하고 트래킹 할 수 있는 ActiveTrack을 구현하였고, 비행 중 지형지물을 파악하여 장애물 회피가 가능하다.

그밖에 영화 등 전문적인 영상제작에 사용되는 3축 짐벌시스템인 Ronin을 포함해 핸드헬드 짐벌카메라인 마이크로포서드(M4/3) 이미지센서를 사용한 OSMO X5와 Sony Exmor R CMOS 1/2.3"이미지 센서를 사용한 OSMO X3모델이 전시되었으며 직접 OSMO를 빌려 1시간동안 체험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Ronin



OSMO X5



OSMO X3

기타 업체들과 부대행사



이번 P&I 2016에서는 주요 카메라 및 렌즈뿐만 아니라 조명, 촬영 보조 장비, 특수 장비 등 촬영에 관련된 장비들과 프린터, 사진, 액자, 앨범 출력 등 사진 산업에 활용되는 관련 제품 및 장비 그리고 가방 등 각종 액세서리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또한, 최근 1인 미디어의 증가와 SNS의 일상생활화에 힘입어 작년부터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MCN(Multi Channel Networks) 사업을, 특별관을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었으며, 유명 BJ들이 전시장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며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했다. 📺



1인 방송 시스템



IP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리모트 카메라

